

한우 씨수소,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첫 시행

조기 선발 씨수소 40마리 최초 선발, 선발기간 5년 → 1년 단축 유전능력 상위 100두 중 78두가 선발 씨수소로 개량효과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한우 씨수소 조기 선발 체계를 도입하고, 지난 3월 26일 열린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조기 선발 씨수소 40마리를 최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조기 선발 씨수소는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12개월령 단계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한우 씨수소는 후보 선발 후 자손의 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확정되는 구조로, 정액이 농가에 보급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최근 유전체 분석 기술 발전으로 어린 개체 단계에서도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가 크게 향

상되면서, 12개월령에서 씨수소를 선발하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발 기간은 기존 약 5년에서 1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가축검정기준을 지난 3월 25일 개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 대상 539두 중 선발지수 상위 100두 가운데 신규 조기 선발 대상이 78두, 기존 보증씨수소는 22두로 나타나 조기 선발 체계의 개량 효과가 확인됐다.

이 중 정액 생산을 위해 상위 40두가 최종 선발됐으며, 약 11개월간의 생산 및 비축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체계에서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후대검정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보증씨수소 약 15마리를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조기 선발 씨수소 정액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급 안정 역할을 맡게 되며, 정부는 2028년까지 유전체 기반 선발 체계로 완전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안심·등심·채끝 등 주요 부위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분육 형질을 반영한 선발지수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급 부위 생산 확대와 함께 한우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가 기대된다.

선발 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한우 집단의 연간 유전적 개량량은 기존 대비 약 2.7배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거 약 3년이 걸리던 개량 성과를 1년 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약 5,054억 원 규모의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정액 공급 기반도 확대된다. 현재 씨수소 100마리, 연간 220만 개 수준인 정액 생산을 2028년까지 씨수소 200마리, 최대 270만 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 서산 한우 개량사업소에 이어 2026년 하반기 경북 영양사업장에도 정액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은 농협경제지주, 지자체와 협력해 암소 유전체 분석과 우수 개체 선발, 암소검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확대를 통해 씨수소와 암소를 아우르는 개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씨수소 조기 선발은 유전체 기반 한우 개량체계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개량 성과가 농가 현장에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조기 선발 씨수소 선발을 위한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

농협사료, '명품어린송아지' 출시

한우·낙농 통합 어린송아지 사료 출시 초기성장 '골든타임' 확보로 생산성 UP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가 2026년 3월 30일, 송아지의 개량 수준을 반영하고 초기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제품 '명품어린송아지'를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한우와 낙농 송아지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으로, 최적화된 영양 설계와 체계적인 급여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성장 및 체조직 발달을 바탕으로 대가축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가축 시장에서 송아지의 초기 성장은 향후 생산성과 성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농협사료는 개량 수준과 자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 대비 스펙을 대폭 향상하고, 송아지의 소화기관 발달과 성장을 극대화하는 '5대 영양 혁신'을 제품에 담아냈다.

송아지 맞춤형 5대 영양혁신... 초기성장 '골든타임' 사수

이번에 출시된 '명품어린송아지'는 개량된 송아지의 유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 성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양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다.

▲ TDN(총가소화영양소) 및 단백질 함량을 향상하여 초기 골격 발달과 증체율을 극대화했다. ▲ 고품질 원료의 사용 비중을 확대하여 영양 공급의 질

을 높이고 사료 이용효율을 향상시켰다. ▲ 비섬유성 탄수화물(NFC)과 아미노산 등 기능성 성분을 증량하여 반추위 및 체조직(유선세포, 근내지방전구세포) 발달을 개선시켰다. ▲ 비타민, 생균제, 효소제 등 미량영양소 보강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질병 저항력을 높였다. ▲ 특수 향미제를 적용하여 어린송아지의 기호성 향상과 조기 입블이기를 유도하여 영양공백을 최소화하고 전환기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농협사료는 축종별 특성에 맞춘 전용 급여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개량 가속화에 따른 송아지의 높은 영양소 요구량을 완벽히 충족함으로써, 농가에서 보다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초기성장 극대화로 농가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기대

이번 신제품은 최적화 영양 설계와 기능성 물질 공급을 통해 생후 초기 발육 부진과 설사 등 질병 발생률을 대폭 낮춰 초기 성장 및 증체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성적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실현하여 농가 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강필 대표이사는 "송아지 시기의 영양 관리는 평생의 성적을 결정짓는 기초 공사와 같다"며, "명품어린송아지" 사료를 통해 농가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사료는 전국 축협 우시장을 중심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신제품 소개, 컨설팅을 병행하며 신제품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명품어린송아지(농협사료제공)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청년조합원 세무 교육'

증여·상속·양도세 교육... 실무 중심 절세 전략 제시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조합장 구희선)이 31일 청년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무 교육을 실시하며,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축산기획부 원경남 세무사를 초청해 '증여, 상속, 양도소득세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복잡한 세무제도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년조합원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안과 세제 혜택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청년조합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실무적인 질의 응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희선 조합장은 "세무는 축산 경영의 핵심 요소로, 세법에 대한 이해가 수익성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오늘 교육이 축산 경영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은 앞으로도 청년조합원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지원 할 계획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평가 추진

관련기술 평가 통해 우수한 기술 축산농가 제공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 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의 단계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과 기술의 우수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평가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종합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책자로 제작돼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축산업 종사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공동 및 개별 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비롯해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 저감 및 제어기술,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분야에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성, 장비 내구성, 경제성 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정하고 배점을 조정했다.

또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안내도 병행했다.

공고의 세부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6일 24시까지이다.

신청서는 '축산환경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과 평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3일 오후 2시 축산환경관



▲축산환경관리원 제공

리원 6층 대교육장에서 사전 설명회가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행복한농산물,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